

2024년도 제5호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아르헨티나: ACN 후원자들의 지향을 담아 미사를 집전하는 마르틴 신부, 가브리엘 신부, 후안 신부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발행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CN KOREA | 전화 02-796-6440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 팩스 02-796-6439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 예금주 (사)고통받는교회돕기한국지부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마지막 회칙은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교회 신비의 핵심’을 요약한 진리가 성체성사입니다. ‘교회의 모든 영적 선을 담고’ 있는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기록한 미사에 항상 여러분의 지향을 봉헌하도록 초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미사에 예물을 봉헌하면, 사제는 여러분의 지향을 기억하면서 성찬례를 거행합니다. 미사 지향은 부부, 자녀, 사랑하는 망자들을 위해서, 또는 힘든 일이나 다른 특별한 지향 등 아주 개인적인 일을 위해 바칠 수 있습니다. 보편 지향을 위해서도 미사 예물을 봉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화, 교회 사목자들, 국가 지도자들 또는 성인들과 천사들의 공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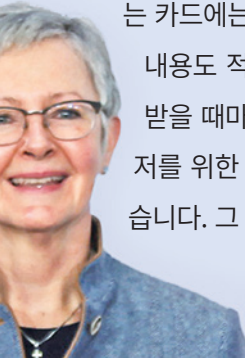
미사 예물을 봉헌하는 행위는 교회의 아주 오랜 전통에 근거합니다. 이미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사제의 생계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미사 때 식량을 가져오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황청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도 여러분의 미사 예물을 통해 세계 최빈국의 40,000명 이

“우리가 미사를 통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랑과 자비의 행위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자란 아일랜드에는 멋진 전통이 있습니다. 죽은 이의 영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이의 영혼을 위해서도 미사를 봉헌하는 전통이지요. 결혼기념일, 생일, 또는 시험 합격을 축하할 때 소위 ‘미사 꽃다발’을 선물합니다. 말하자면,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하는 한 방법이었지요. 이때 주고받는 카드에는 상대방을 위해 미사가 봉헌되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미사 꽃다발’을 받을 때마다 저는 고향 본당이든 선교지에서든 저를 위한 미사가 봉헌될 거라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그 어떤 아름다운 꽃다발보다 훨씬 더 대



상의 사제와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움이 없었다면 많은 사제가 사목 임무를 완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곳 사제들과 신자들에게는 생활필수품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교구에서도 이들을 정기적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ACN은 여러분의 미사 예물을 어려운 사제들에게 기쁘게 전달하며, 이는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미사 봉헌 형식은 개별 미사(1회 미사), 트리둠(3일 연속 미사), 노베나(9일 연속 미사), 또는 그레고리오(30일 연속 미사) 등 다양합니다. 그레고리오 30일 미사는 고인을 위한 위령미사로 봉헌되며, 기원은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교황은 죽은 수도자를 위해 매일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30일이 지나자 죽은 수도자가 교황에게 환시로 나타나 연옥에서 벗어났다고 알렸습니다.

죽은 이들의 영혼은 연옥에서 자신을 위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살아있는 이들의 중재 기도와 하느님의 자비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죽은 이들을 위해서는 미사 봉헌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므로, 이런 방식의 중재 기도는 그들을 위한 특별한 사랑과 자비의 행위입니다.

미사 봉헌에 진심으로 초대하면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ACN 지도신부 안톤 레서 *P. Anton Lese OP*



단한 선물이지요!

다행히도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많은 나라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에게는 약간의 수입도 보장합니다. 특히 ACN을 통해 미사 예물을 받는 사제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전통이지요. 이 사제들은 종종 생활이 넉넉지 못한 신자들의 기부로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고 싶을 때, ‘미사 꽃다발’을 잊지 마세요!

ACN 수석대표 레지나 린치 *Regina Lynch*



ACN은 1979년부터 어린이 성경책 <하느님이 당신 자녀에게 말씀하신다>를 발행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경책은 이미 194개 언어로 번역되어, 5,170만 부 이상이 배포되었습니다. 모두 여러분 도움 덕분입니다!

때로는 이 작은 책자가 인생 전체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쿠바 카마게이 지역의 오카 출신인 롤란도 몬테스는 어릴 때 사제에게 어린이 성경책을 선물 받았습니 다.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에서 성경책은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이제 롤란도 몬테스는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신학교에 갈 때도 어린이 성경책을 지녔습니다. “어린이 성경책을 읽고, 저는 하느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제 안의 사제 성소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사제가 되어 온전한 성경책을 사용하지만, 어린이 성경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는 여전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어떤 어린이들은 이 작은 빨간 책자를 갖게 되면 품에 꼭 안고 입맞춤합니다. 지금까지 책을 본 적도 없고, 언젠가 책을 갖게 되리라는 꿈조차 꾸어보지 못한 어린이들도 많습니다. 밝은 색감과 표현이 풍부한 그림들이 어린이들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책자와 함께 교육용 포스터가 제공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 좋은 교육 수단입니다.

<하느님이 당신 자녀에게 말씀하신다> 책자는 케냐

북서부에서도 사용됩니다. 이곳에서는 릴리안 오마리 수녀가 투르카나 부족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마사이족과 마찬가지로, 투르카나 부족도 전통적으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정착 생활을 하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가축을 데리고 먹이와 물을 찾아 이동합니다. 대부분은 부족 언어만 사용합니다. 케냐의 공식 언어인 영어와 스와힐리어는 이들에게는 마치 외국어와 같습니다. 투르카나 언어로 된 어린이 성경은 이들도 이해할 수 있으며,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습니다. 릴리안 수녀는 말합니다. “책에 삽화가 있어서 사람들은 책을 구경하고, 넘겨보고, 만져보고, 느끼고,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이 책자는 지역에서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어린이 성경이 여러 언어로 번역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모든 후원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낯선 언어가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들의 마음에 직접 와닿는 친숙한 목소리로 말입니다.

하느님은 자녀들에게 모든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ACN은 어린이 성경을 여러 언어로 번역해서, 가능한 많은 어린이에게 선물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성경 발간 45주년을 맞이하여, 더 많은 어린이가 이 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

- 1 남수단: 어린이 성경을 받고 크게 기뻐하는 어린이들
- 2 2007년 브라질: 천만 번째 포르투갈어 어린이 성경을 전달하는 교황 베네딕토 16세
- 3 과테말라: 어린이 성경을 갖게 된 어린이들!
- 4 짐바브웨: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어린이들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다.”



성체 -
불사의 약



세상의 구원을 위한
흠 없는 희생제물



월세어에서도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하이로 신부

브라질의 미사 예물 하느님 자비의 증인

1982년 브라질에서 설립된 가톨릭 공동체 <살롬>은 현재 2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살롬>의 회원인 사제와 평신도들은 복음화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브라질의 <살롬> 소속 사제 30명에게 미사 예물을 지원합니다.

그중 한 명이 51세의 하이로 신부입니다. 하이로 신부는 2015년에 본당 개보수 공사 중 비계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에도 그는 행복한 사제입니다. “모든 일이 잘될 때만 행복할 수 있다고 많은 이가 생각하지요. 그러나 저는 행복하고, 항상 하느님의 은총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 신앙과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며 가까이 다가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행복할 수 있는지 자문합니다. 저는 이를 하느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비된 몸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어도 저는 기도, 밤샘 기도, 미사 거행, 고해성사, 그리고 신앙 강좌 등의 사목활동에서 하느님이 어떤 은총을 끌어내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의 사제직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저의 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손길이 제 삶에 개입하시는 걸 보니 얼마나 행복한지요!”

하이로 신부를 비롯한 <살롬>의 사제들은 언제라도 신자들에게 성사를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때마다 항상 하느님 자비를 경험하지요. 프란치스코 신부가 보고

합니다. “한 남성이 집에서 5년 동안 깊은 혼수상태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연락이 와서 병자성사를 주게 되었는데, 두 시간 후에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하느님이 당신 자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푸시는지 목격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살기 위해 애썼던 남성은 이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성사만을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를 통해 하느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이토록 부족한 도구인 저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지요.”

미셀 신부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느님께서 치유하시고, 그분에 대한 우리 믿음을 강화하시고 우리를 그분과 화해시키시며, 성사를 받는 이들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명을 지원하는 모든 후원자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의 삶과 사명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느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올해에도 브라질의 <살롬> 공동체 소속 사제 30명에게 여러분의 미사 예물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사제들은 많은 이에게 하느님 은총과 자비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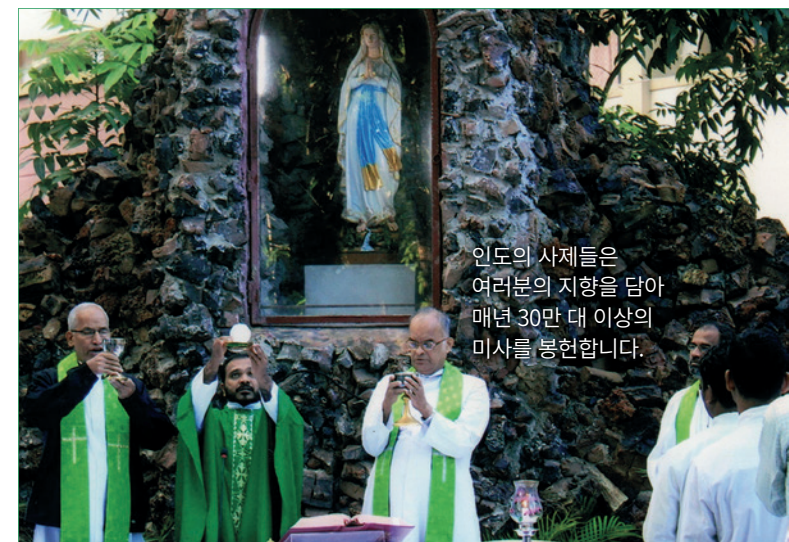
여러분을 위해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들! 남아시아

신자들이 너무 가난해서 사제들을 지원할 수 없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ACN 후원자들의 미사 예물은 큰 도움이 됩니다. 남아시아도 그중 한 곳입니다.

헤라트 몬돌 신부는 방글라데시 남동부의 치타공 구릉지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산속에서 생활하는 원주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주 먼 지역을 걸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신자들을 만나려면 강을 건너고 산도 올라야 하지요. 성당이 있는 지역도 몇 군데 없어서, 마을 사람들을 주로 신자들 집에 모아서 미사를 드리고 교리문답도 가르칩니다.”

그의 동료인 파울루스 무르무 신부가 덧붙입니다.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인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들은 소유한 땅이 없어서 정글을 벌목하는 사람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주민들을 위한 사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협과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은 여전히 강합니다. 미사 예물을 봉헌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ACN 후원자들의 지향으로 미사를 집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교수 사제들도 여러분의 미사 예물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수 사제들은 신학생들을 지적 그리고 영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기에, 본당 사목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당 신자들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기적인 지원은 인도 서부 벵갈의 바라푸르에 위치한 신학교 교수 사제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성모님에게 봉헌된 이 신학교는 성모님의 상징을 따서 ‘셋별 신학교’(요한 바오로 2세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 3항 참조)라



인도의 사제들은 여러분의 지향을 담아 매년 30만 대 이상의 미사를 봉헌합니다.

고 불립니다. 30개 교구와 여러 수도회에서 온 젊은이들이 인도에서 사제로 직면하게 될 많은 어려움을 이곳에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소수민족인 가톨릭 신자들이 간절히 사제를 기다리는 북부와 북동부의 몹시 가난하고 외딴 지역으로 파견됩니다.

세바스티안 로드리게스 신부는 신학교에서 사제 양성을 담당하는 사제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거룩한 미사를 집전하고 성찬례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일은 큰 기쁨입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미사 예물을 통해 저희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희 사목활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제들과 많은 동료 사제는 올해에도 여러분의 지향을 담아 거룩한 성찬례를 거행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

신자들을 방문하는 길: 방글라데시의 오블라미 선교 수도회 소속 사제들



인도: <셋별 신학교>의 미사



인도: 여러분의 지향을 위해 미사를 집전하는 헨리 신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저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죽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가르멜 수도회 소속 아우렐리오 가제라 신부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총을 든 무장군을 항복시킨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에 관한 노래까지 부릅니다. 가제라 신부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반군과 평화 협상을 끌어내,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제라 신부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방가쑤교구의 부교구장 주교로 임명했습니다.

방가쑤교구는 쉬운 곳이 아닙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광활한 남동부 지역은 대부분 반군의 손아귀에 놓였습니다. 공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두 본당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접근이 어려운 이 지역은 열대우림으로 덮여 있습니다. 수도는 불과 75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비행기로만 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2주가 걸리며, 우기에는 도

로를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교구는 많은 성소자와 함께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가쑤에 도착한 직후, 가제라 주교가 며칠 지낸 곳은 최근에 반군이 수많은 집을 불태우고 최소 12명을 살해한 지역의 본당입니다. “사람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과 사제들을 격려했습니다.” 가제라 주교의 말입니다. 그러나 주교는 단순히 위로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 떼를 위험에서 보호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여러 반군 단체와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제 능력이 한정되어 있지만, 평화의 물꼬를 트고 싶습니다.”

가제라 주교는 이미 여러 차례 반군을 철수시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반군들은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올바른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교 자신도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가 탄 차가 돌에 맞고, 칼라시니코프 소총으로 위협당했을 때 주교는 목주기도를 바쳤습니다. “반군은 항상 중무장하고 있었지만 저는 무기도, 무장한 호위병도 없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정한 힘은 약함과 사랑에 있습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는 사람은 강합니다. 게다가 저에게는 기도와 하느님의 현존이라

는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성찬례와 부활 믿음에서 용기를 얻은 가제라 주교의 가장 깊은 신념은 “저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죽지 않습니다.”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용기 있는 사제와 수도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날마다 목숨을 바치고 있고, ACN은 이들을 지원합니다. 가제라 주교는 자신과 같은 선교사들을 돕는 이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힘든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의 도움은 참으로 소중한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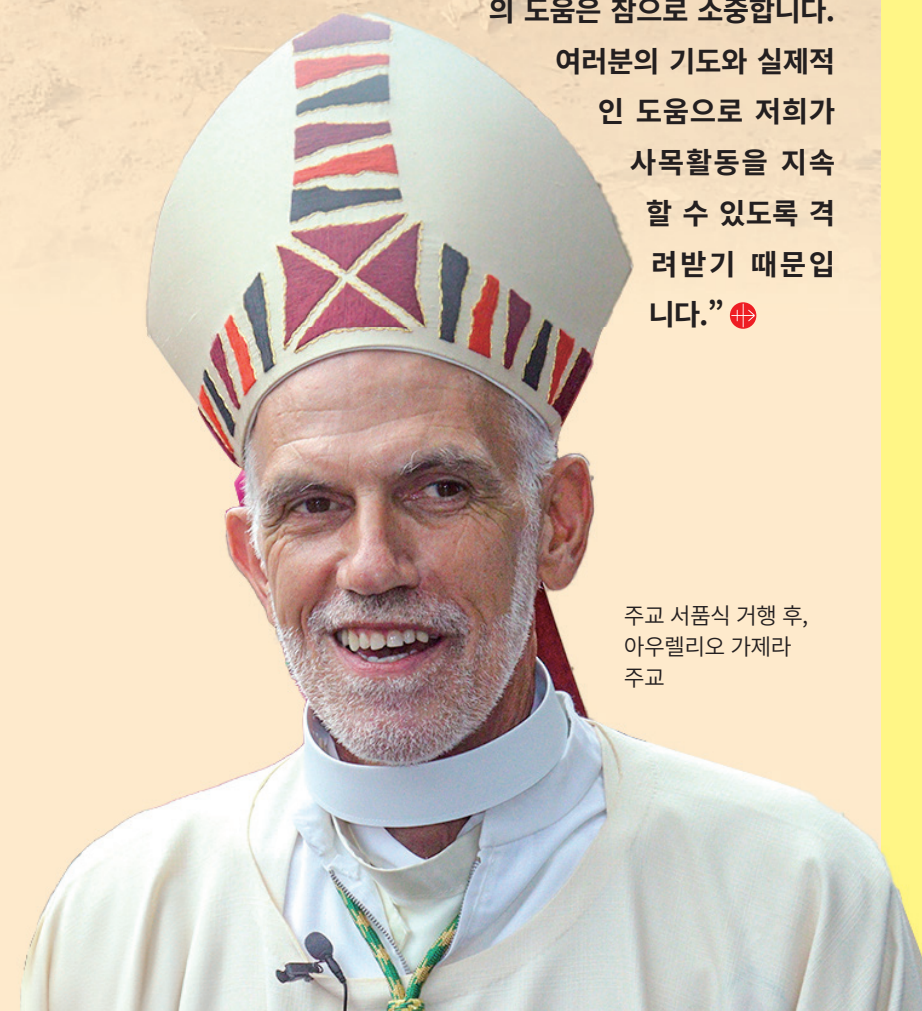
여러분의 기도와 실제적인 도움으로 저희가 사목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받기 때문입니다.”



터지지 않은 수류탄 모습



마을을 공격한 중무장한 반군들



주교 서품식 거행 후, 아우렐리오 가제라 주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기도를!
100만 어린이가
목주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ACN은 매년 10월 18일에 100만 어린이와 함께하는 목주기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놓쳐서는 안 될 행사이지요!

전 세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모여 세계 평화를 위해 목주기도를 바치도록 초대합니다. 이 소중한 기도는 우리에게 희망의 원천입니다. 세상에서 점점 커지는 갈등, 테러리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전쟁과 테러 희생자들과 연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ACN은 10월 18일 성 루카 복음 사가 축일에 평화를 위한 전 세계적인 기도 운동 ‘100만 어린이의 목주기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분이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세계 평화와 일치를 위해 성모님께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전구를 청합시다.

후원자들의 편지



커다란 선물

예수 성심 대축일에 ACN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는지요! 우리 후원자들을 위해 140개국의 사제들이 미사를 거행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커다란 은총이고 기쁨입니다! 저는 이날 사제들, ACN,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덜란드의 여성 수도자

한국지부 소식



기도문
신청하기

전 세계 평화와
일치를 위한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 묵주기도를 바치면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

Pray the Rosary and there will be peace!

100만 명의 아이들이 묵주기도를 바치면
세상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 오상의 성 비오 신부

교황청재단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 고통받는 교회돕기(ACN)는
매년 10월 18일 성 루카 복음사가 축일에 세계 평화와 일치를 위해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캠페인을 펼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요!

참여방법

- 1 기도문 신청하기 (QR 코드 접속 또는 문자 010-7475-6440)
- 2 10월 초 일반 우편, 이메일로 기도문 발송 예정
- 3 10월 18일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함께하기 선교 지역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성경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796-6440, 010-7475-6440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예금주 (사)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